





◎… 전라북도 교육의 總帥 柳在新 教育감—.

1981년 9월, 제6대 교육감에 취임한 이래 柳교육감은 교육의 총책임자답

게 한 순간의 寧日도 없다.

지나온 33년간을 오로지 후진 양성을 위해 헌신해 온 柳교육감이기에 오늘도 전북교육의 주요업무 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학생들의 기생충 감염율이 매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기생충박멸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전북도 학생들의 기생충감염율은 80%정도였으나 현재는 금년도 춘계학생 기생충 검사 결과 20년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된 9.4%의 감염율을 보였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柳 在 新 씨

이것은 10여년간에 걸쳐 寄協에서 실시한 춘추 2회의 집단검사와 충란 보유자의 무료투약 등의 영향이 절대적이지만 먼저 기생충 예방에 관한 예방교육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봐요. 슬라이드, 영화, 건강소식 등 계몽책자는 계몽효과를 상승시켰습니다.

또 한가지 외적 여건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환경위생의 개선을 들 수 있겠지요.

과거 20년전에 비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국력과 더불어 많은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위생의 개선은 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더구나 요즈음은 인분재배 채소는 거의 없고 비닐 하우스 등에 화학 비료를 써서 무우 배추 등을 재배하여 먹는 것이 토양매개성 기생충의 감염원을 차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寄協에서 실시한 KBS 라디오를 통한 간디스토마의 예방과 퇴치하는 방송을 크게 감명을 받았노라고 말씀하면서 도민들 누구나 스스로 기생충 예방에 힘쓰자고 역설하기도 한다.

금년에도 전체 초·중·고 65만명중 98%인 63만명을 검사해서 대단한 실적을 자랑했다고 말씀한다. 이런 추세로 나아간다면 기생충 감염율 0%도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이렇게 기생충에 관한 논리정연한 이론을 갖인 柳在新교육감의 지휘하에 있는 전북의 기생충 감염율은 저하될 수 밖에 없구나 하고 느끼게 한다.

— 柳교육감님이 펼치고 계시는 학교보건관리나 건강관리는 어떤 방침하에서 수행하고 계시는지요?

『그 나라 국민의 건강은 곧 그 나라의 부강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장래 그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 갈 2세 국민들의 건강의 중요함은 체언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북은 학생들의 보건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요.

첫째, 매년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함께 기생충, 결핵, 혈액형, 뇨검사 등 병리검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의 건강에 관한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있지요.

둘째로, 전도의 각급 학교에 1校 1양호실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급의 감축으로 인한 잉여교실을 양호실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체 학교의 75%가 양호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85년도에는 60개 학교의 증설을 목표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보건안전교육의 실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통안전, 수상안전, 전기, 연탄가스 사고 등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막연히 알고 있던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교육을 하고 있지요.

넷째, 보건교육의 강화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양호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양호교사의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양호교사 미배치학교의 학생보건위생교육과 질병 퇴치를 위하여 양호교사 순회근무제를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서 다대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교육위원회에서 분기별, 월별 위생교육자료도 송부하고 있고 학생들의 체위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과 식생활개선키지도, 두발 및 교복자율화에 따른 순결교육과 성교육 등을 강화, 인격적인 면이나 보건교육면에서 완벽한 인간이 되게끔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柳교육감의 말씀에서 기자는 성실하고 열성적인 교육 이념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 柳교육감님의 교육 理念이랄까 全北교육의 基本방향이 있으시다면?

『우리 전북교육의 기본 방향이라면 “새意志·참 教育”을 들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3대지표가 있는데, 첫째 調和로운 인간의 육성, 둘째 敎職의 召命의식 自



기자와 대담하는 柳교육감

쫓, 셋째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이 바로 새 의지, 참 교육입니다.

모든 인간이 편벽되면 모든 사고가 올바르게 못합니다. 곧 全人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또한 교육자는 마땅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격적인 스승이 될 수 있겠지요. 또한 찾아서 도와 주는 행정으로 官民이 합심할 때 모든 것이 体感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외모에서 풍기는 자상함과 차분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특색있고 자주성 있는 교육행정을 하시는 풍모가 역력히 보인다.

『健協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에도 관심이 대단합니다.

『健協의 발족은 대단히 時宜에 맞는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도 교육위원회 직원이나 가족들에게도 성인병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픈 다음에 병원을 찾는 것보다 질병을 早期 발견하여 早期에 치료하는 것이 자기 몸을 위하는 첩경이 아니겠어요. 예로서 일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자기 생일날을 건강 검사일로 정해서 체크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건강검사가 여러가지 면에서 강화되어 누구나 한번씩 검사를 받는 혜택이 주어 졌으면 합니다.』

柳교육감은 힘주어 말하면서 건강검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柳在新교육감은 33년간을 꾸준히 교육계에 헌신, 정부로부터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상한 바 있고,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에 유공한 공으로 문교부장관 표창도 수상한 바 있다. 夫人 姜順祚(女史)와의 사이에 3男3女.

취미는 화예.